

# AI 발병농가 확산... “얼마나 잠복해 있나” 전남 긴장감 고조

### 고창·부안 확진 4곳으로 늘어... 예방활동 전방위 확대

### 11월까지 가창오리떼 머문 영산호 주변 감염 보고 안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확진 농가가 늘면서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지난 17일 첫 AI 감염 확진 이후 시간을 두고 고창·부안 일대에서 감염 확진 농가가 4곳으로 늘자 바이러스가 전반적으로 잠복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는 21일 “예찰 활동을 통해 전북 고창·부안의 발병농가 인근에서 AI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 5곳을 확인했으며 이 중 한 곳은 H5N8형 AI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가 확인된 AI 발병

농가는 앞서 발병한 농가와 비슷한 시기에 AI에 노출됐다든 증상이 나타난 것이어서 AI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AI 사태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가창오리떼가 고창·부안 일대에 이미 AI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뿌렸다면 확산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곳곳을 이동하며 겨울을 나는 가창오리떼가 AI 감염원으로 드러났고 잠복해 있는 AI가 곳곳에서 발병한다면, 가창오리떼가 이미 이동한

전남지역도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창오리떼는 지난해 11월까지 영암 영산호에 머물다 지난달 이동해 동림저수지와 금강호에 있다.

문제는 가창오리가 전남에 머문 기간이나 전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AI의 주감염원인 분변을 곳곳에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환경부에서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청둥오리의 하루 활동반경은 30~40km 달한다. 가창오리의 활동반경도 이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전남지역 대부분이 가창오리의 활동반경 안에 드는 셈이다.

이에 전남도는 가창오리가 머문 도래지 주변에서 분변을 치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AI는 공기로 감염되지 않고 오염된 과 직접 접촉이 이뤄져야만 감염된다

는 점에서 철새의 분변 등 감염원이 농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족이 AI에 감염되는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도 영산호 주변 농가가 AI 피해를 보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가창오리떼가 11월까지 머물렀던 영산호 주변 농가에서는 AI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가창오리가 국내에 들어와 AI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영산호 주변 농가는 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을 통해 감염원이 농장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냈다는 뜻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철새가 AI에 감염됐더라도 감염원이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막으면 닭·오리 등 가금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축사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신고가 전복에서 잇따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1일 한 차량이 고창 동림저수지 인근에 설치된 방역소독대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순천만 생태공원 잠정 폐쇄·수렵장 운영 중단

### AI 파동에 전남 시·군 단체장 일정도 줄줄이 취소

### 나주 연두순방, 영암·구례 군민과의 대화 무기연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어를 위한 힘을 쓰고 있는 전남지역 각 시·군 단체장들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관내 조류가 서식하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사람 및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특히 새해를 맞아 주민과의 만남에 나섰던 단체장들이 읍·면·동 연두 순방을 무기 연기하거나 연기를 검토하

며 AI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나주시는 21일 “지난 2011년 AI 발생으로 154만마리의 오리과 닭 등을 매몰했던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임성훈 시장의 읍면동 연두순방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지난 8일부터 성북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을 순방하고 있

으며, 21일부터 3일간 송월동을 비롯한 5개 지역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주 ‘군민과의 대화’를 가지려 했던 영암군과 구례군 무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는 22일부터 지역 최대 관광자원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잠정 폐쇄한다.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가창오리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철새도래지인 순천만의 관광객 및 차량 출입을 금지한 것

이다.

순천만에는 흑두루미, 가창오리 등 90여 종, 1만여 마리의 철새들이 월동하거나 통과하고 있다.

전라남도도는 AI가 발생해 광주·전남·전북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도내 수렵장 3개소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수렵장은 당초 2월2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중단했으며 향후 재개 여부는 별도 고시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이번 AI 피해 왜 오리에만 H5N1형은 닭, H5N8형은 오리에 치명적 추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은 유독 오리에만 피해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또 올해 AI가 예년과 다른 점은 그 유형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병한 H5N8형이라는 점이다.

이번 AI는 닭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던 예년과 다르게 오리 농가에서만 발병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H5N1형 AI는 닭의 폐사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는 ‘불형성 감염’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생오리떼가 폐사하고 오리농가 4곳이 직격탄을 맞은 등 오리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올해 AI가 발생한 고창·부안 오리농장 인근 닭 농가에서는 현재까지 폐사와 감염 의심 등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AI가 발병한 고창과 부안 오리농장의 반경 3km 안에는 오리농가 34곳

(66만4천 마리)과 닭 농가 23곳(108만 마리)이 있다.

H5N8는 1983년 아일랜드에서 칠면조가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아시아에서 10여 차례 발생했다. H5N8 감염은 주로 오리류에 집중됐고 닭의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상을 보면 H5N1형은 닭에, H5N8형은 오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AI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 종(種)간 특이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서 “내성이 강한 야생철새가 집단 폐사했을 정도면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H5N8형으로 인한 인간 사망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심부지열 시추장비 10억달러 수출 협약

### 호주·핀란드 등 9개국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평하고 있는 광주의 심부(深部)지열 시추 장비가 해외 9개국에 수출된다. 총 수출액만 10억8000만달러(1조1000억원)다.

광주시는 “22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진디엔비와 공동으로 ‘심부 지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김승남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급의 자회사로 알려진 미국 알타락 에너지사의 트랜트 최고기술책임자(CTO),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 블랙웰 교수,

서스테이너블 솔루션사의 베노이트 회장 등 미국 심부지열 기술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알타락 에너지사는 820억여 원을 투입해 광주에 3.5MW급 심부지열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구급은 사회기부부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모범모델을 개발해 저개발국가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광주에 심부지열 발전소를 설치한 뒤 성공할 경우 전 세계에 이를 보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포지엄에 앞서 광주시와 알타락 에너지사는 ‘심부 지열 발전 투자유치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광주시·한

국생산기술연구원과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독일 보훔대의 ‘국제연구 네트워크 업무협약’, 광주시·한진디엔비와 해외 업체의 ‘시추기 수출협약’ 등도 예정돼 있다.

이날 수출협약 규모는 4년간 10억 8000만달러(1조1000억원)으로, 호주 ATM사를 비롯한 핀란드와 스웨덴, 러시아 등 세계 9개국 9개 시추 전문기업이 한진디엔비의 시추 장비 구매를 예약한 상태다. 판매 품목은 3502M 실증시추에 성공한 350톤 규모의 D&B 350과 올해 개발 예정인 450톤 규모의 D&B 450을 포함한 다양한 시추장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행복주택 1200가구 짓는다

서민 주택난 해소... 2016년까지 광주역·서림마을 주변

광주시가 집없는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행복주택’ 1200가구를 짓는다.

광주시는 21일 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행복주택 사업설명회를 열고 광주역과 서림마을 주변에 각각 700가구와 500가구 등 12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2월3일 정부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2016년 완공 목표에 각각 700가구와 500가구 등 12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2월3일 정부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2016년 완공 목표에,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주변시세의 80% 이하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며, 임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공급 물량 중 80% 이상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중-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라남도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 광주원광신협

광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홍암지점 | 653-4474

# 公告

##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김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